만사 OK 응답 매뉴얼 4단계

(욥기 37:1~24)

1.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2.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3.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 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만사 OK 응답 매뉴얼 4단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만사 OK 응답 매뉴얼 4단계'
제가 미군부대 카투사로 3년 가까이 군복무 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 배정받아서 갔던 부대는 미제2사단 육군 비행대에서 헬리콥터를 정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비하는 파트에 들어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통 미군들은 1년씩 교육을 받고 정비병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는데, 저는 곧바로 정비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B중대가 관할하는 헬리콥터가 관측용 14대와 우리가 흔히 보는 다용도 헬리콥터 7대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 배우다가 정비파트에서 헬리콥터의 동체를 고치는 판금파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었는데 판금파트에서 근무하던 미군 병장과 상병이 둘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저 혼자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21대의 헬리콥터를 다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 가까이 배우기는 했지만 맡길 수 있는 실력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에게 묻기에 한 단계 한 단계 매뉴얼을 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21대의 비행기를 잘 고쳐낸 끝에 중대장이 감동을 해서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생겨서 또 부관중대로 부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배정된 파트가 트레이닝 룸으로 불리는 교육훈련처였습니다. 그때에도 중사와 병장 밑에서 심부름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트레이닝 룸의 벽 사면에 쌓여있던 수백 건의 매뉴얼을 보면서 250명 부관중대의 일 년 훈련, 개월별 훈련, 매주훈련을 짜서 싸인 받고 조처를 취하면서 1년 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관중대의 중대장님이 미8군 공로훈장까지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대와 겹쳐서 그 일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것은 매뉴얼의 힘입니다. 매뉴얼대로 따라하니까 표창장도 받고 공로훈장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훈장을 추천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든 어떤 변수가 생기든 상관없이 오직 한 단계의 과정을 밟음으로서 반드시 OK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중에서도 후반부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말에서만 결론부인 것이 아니라 욥기서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온 욥과 친구들의 변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에서 엘리후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앞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엘리후는 욥이 관계하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아닌 착각속의 하나님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 주체가 되어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필요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면, 반드시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 앞에서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과정 중에 찾는 하나님은 착각과 환상의 하나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단계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첫 번째 매뉴얼의 단계가 설명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우렛소리와 번갯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한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에서 바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걱정하다가도 갑자기 뇌성벽력이 치면 짧은 순간이지만 주의와 집중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문제나 상황이나 변수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뇌성벽력이 칠 때에 순간적으로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빨려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지금 문제에 대해 죽는 것으로서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 될 네 단계의 매뉴얼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붙잡는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를 붙잡고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셈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뇌성벽력이 내려칠 때에는 순간이나마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13절까지 두 번째 매뉴얼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려고 할 때에 마음에 제일 큰 방해거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를 돌보지 않아도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할 때에 듣게 되는 이 강력한 음성은 곧 명령으로서 이 세상 삼라만상에 모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롯이 가족들과 함께 소돔을 탈출할 때에 롯의 아내가 두고 온 것들이 아까워 뒤를 돌아보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내가 등 돌리고 있어도 내게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중입니다. 이 명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모든 신경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해 진정한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으므로 나는 문제에 대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섭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가 지나가고 세 번째 매뉴얼 단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세상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해주실 것으로 믿었던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다 잘 될 줄로 알았는데 현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14절에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라고 했고 16절에서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19~20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의도로 인한 일을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켜 진다'는 것은 아예 존재가 뿌리째 뽑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일은 하나님께 맡겼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일이 좋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것일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내 삶의 형편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괴로워합니다. 즉 매뉴얼의 세 번째 단계는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임을 알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평강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순교도 가능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지만 시험에 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매뉴얼 단계는 하나님 경외를 말합니다.
'경외'는 곧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지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실제로 체감하므로 경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즉 그것이 없다면 살 수 없다고 느껴지고, 어떤 대상이 상실되면 만족과 기쁨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지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1단계에서 뇌성벽력이 칠 때처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2단계는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3단계는 그렇게 할 때에 세상 기준으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시험에 드는 것도 문제이고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4단계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더라도 기뻐하지 않고 돈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해야만 합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살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결심으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이 4단계 매뉴얼 단계를 따라야합니다.
'뇌성벽력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듯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시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내 마음이 죽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걱정하는 세상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에 명령 내리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변수들에 대해 이 매뉴얼 4단계를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만사가 OK로 이루어져 갈 것인데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

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문제에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고 4단계의 응답 매뉴얼의 과정을 기도하는 중에 모든 상황과 문제는 하나님 손에 넘어가고 평강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붙잡고 응답 매뉴얼 4단계를 거치며 기도함을 통하여 만사에 OK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